

농업, 식량 넘어 공익적 위상 중요

농경연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국민 80% 농업 중요성 인정 안정적 식량 공급·환경 보전 기여 등 이유로 복지예산 증액 찬성도

국민 10명 중 8명은 향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위상이 중요할 것으로 답했다. 또 과반수 이상 국민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을 위해서 추가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도 긍정적이라는 응답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업에 대한 인식 상향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직업 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의 78.1%와 도시민 80.5%가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농업인 59.6%와 도시민 59.1% 등 과반수 이상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도시민의 절반 이상이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58.7%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들은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공익적 기능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꼽았다. 그 외에도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여, 국토 균형발전 기여 등의 이유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

이처럼 농업·농촌의 높은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한 도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 찬성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중 추가 세금부담에 찬성한 비율은 전체의 62.4%로, 지난 2020년(53.3%)보다 9.1% 올랐다.

또 도시민 중 48.9%는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하기도 했다.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상승한 반면, 정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직업 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응한 농업인 중 18.3%가 직업으로서 농업인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25.3%) 대비 7%p 감소한 수치다.

또 농업인 중 27.7%는 직업에 불만족한다고 답

했다. 농업인들은 직업 만족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로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54.6%)'를 꼽았다.

그 외에도 '타 분야 대비 정부의 관심 및 지원 부족(15.5%)', '육체적인 힘들(11.6%)',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인한 장래 불안(9.4%)'가 있었다.

특히 농업인 직업 만족도와 직결되는 경영 어려움의 가장 큰 요인 '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생산비 증가가 21.1%로 가장 높았고, 일손 부족(15.9%),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13.3%),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 피해(9.3%) 순이었다.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26.3%로 전년 대비 3.2%p 증가했지만, '불만족한다' 역시 전년보다 5.4%p 증가한 19.4%를 기록했다. 만족과 불만족이 늘어난는 대신 '보통이다'는 43.9%로 전년에 견줘 2.7%p 감소했다.

한편, 위 조사는 농업인의 경우 전국 1238명의 읍·면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편조사했고, 도시민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를 방문하고 직접 면접 조사를 펼친 결과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시대의 거울 '명절 선물'

치솟는 물가에 과일 세트 인기 시들... "선택 기다릴 수밖에"

명절 전 친구들과 모임에서 명절 선물 이야기 나왔다. 설 명절에 선물로 받은 김 한 톨을 온 식구가 겨우나 먹었던 기억이며, 삼촌의 손에 들었던 과자 종합선물세트에 가슴 설레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웃음꽃을 피웠다. 선물의 종류도 다양해졌다고 했다. 달걀에서 밀가루, 한우, 과일 세트, 상품권까지 시대별로 인기를 끌었던 품목을 언급하며 추억을 떠올렸다.

명절 선물의 변천사를 보면 끔찍했던 1960년대 전후엔 설탕이나 조미료, 비누 같은 생활품을 나누는 것이 그였다. 달걀 몇 알이나 돼지고기 한 두 근 아니면 직접 수확한 농작물을 주고 받았다.

명절 선물의 개념은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고 나서야 등장한 듯하다. 밀가루가 인기를 끌었다.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됐던 1970년대부터는 선물세트 형태의 마용비누나 치약 같은 공산품이 등장했다.

이후 198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선물세트가 선을 보였다. 햄이나 커피, 참치, 참기름 세트 따위의 식품이 불티나게 팔렸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영양제, 욕매트, 꿀, 마사지기 같은 건강이나 효(孝)를 강조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인식의 변화에 따라 백화점이나 마트 상품권으로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급 과일이나 한우, 와인 같은 고가의 선물세트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2010년을 지나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힘입어 수입 해산물도 등장했다. 할 대게나 킹크랩, 전복까지 매대에 올랐고 훈제연어 등 별미 식재료도 선물로 주목

을 받았다. 또 2020년 이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사회 현상을 반영하듯 시니어들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와 전자할매계 등이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특산품이 선물로 활용되고 있다. 침체일로에 있는 농촌을 살리고 관과 기업, 농민이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서 농산물을 비롯한 지역특산품을 선정해 명절 선물로 주고,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품목을 정해 관계 회사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내수진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우, 김, 과일 등 전통적인 특산품부터 전통주, 김치, 한과 등 지역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가공 식품과 방짜유기 등 공예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

지자체들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특산물을 주는가 하면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설을 앞두고 농산물물가가 급등해 소비자는 물론 농가도 울상을 짓고 있다. 사과와 배 등 과일 세트는 물론 겨울철 간식인 꿀마저 울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15.4% 오르는 등 12월(15.7%)에 이어 두 달 연속 15%대 상승 폭을 이어갔다.

치솟는 물가에 사과나 배 등 과일 선물세트가 명절 선물 인기 품목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상황이 왔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일 등 농산물의 인기는 소비자의 선처를 기대할 수밖에.

/bigkim@kwangju.co.kr

농협중앙회 전남검사국, 윤리강령·3행 3무 실천 결의

순회검사역 업무협의회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전남검사국은 지난 2일 순회검사역 업무협의회를 실시하고 '윤리강령 및 3행 3무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의회는 주요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농조합 사외예방과 이상 징후 파악을 위한 효율적인 순회감사 방법 및 제도개선 발굴 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또 참석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검사역으로서의 윤리강령 준수 및 3행(정립·소통·배려) 3무(사고·감질·성희롱)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두식 전남검사국장은 "최근 금융관련 사고가 대형화되고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렇듯 순회감사역간 감사방법 등의 정보 공유에 힘쓰며 감사역 역량을 강화해 무사고 농·축협 구현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순회감사역제도는 감사경험이 있는 순회감사역을 채용해 농·축협 자체 내부통제 이행 실태와 취약부분을 점검하는 제도다. 상임감사제

도가 없는 전남 지역 농·축협 분·지점 573곳을 매일 1회 방문, 시제금과 중요요지, 경제사업장 재고조사를 실시해 사고 조기발견과 사고예방 효과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송정농협, 상호금융 대출금 5000억원 달성탑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4일 송정농협(조합장 차주철)이 '상호금융 대출금 5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은 농·축협의 건전경영과 내실있는 사업 성장을 유도하고자 농협중앙회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이번 수상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어려운 금융 여건 속에서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 날 시상식은 송정농협 51기 정기총회에서 실시됐으며, 이현호 본부장과 차주철 조합장, 류종훈 상임이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송정농협은 농업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자금 지원과 서민금융지원에 노력한 결과, 2021년 4월 상호금융 대출금 4000억원 달성에 이

어 1년 8개월만에 5000억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 'NH로복뱅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차주철 조합장은 "송정농협의 성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과 조합원 및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도 내실 경영을 기반으로 조합원 실익증진과 고객만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는 송정농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제주 월동무' 미국 LA밥상 오른다

온라인도매시장 상품 첫 수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동 운영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에서 거래되는 제주 월동무가 미국 LA 밥상에 오른다.

aT는 그동안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대아청과가 판매한 2024년산 제주 월동무가 미국 LA로 수출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제주 월동무는 지난해 12월 먼저 샘플을 수출하는 등 미국 진출의 물꼬를 텄다. 이후 성공적인 시장반응에 따라 추가물량 계약이 성사됐다. 오는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약 211 t의 제주 월동무가 수출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제주 월동무는 산지인 제주에서 부산으로 바로 배송돼 수출선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될 방침이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경우 제주 산지에서 서울 가락시장으로 반입된 후 다시 부산을 통해 수출됐지만,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수출 과정을 간략화하면서 국내 유통비용이 12.6% 절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제주 월동무는 생산면적은 늘어난 반면 소비가 부진해 평년 대비 가격이 낮게 형성됐지만,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된 월동무는 농가 수취가격도 5.4% 높게 나타내 산지 농가의 시름도 덜어줄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일시상90만원)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전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